

균형발전정책
현장점검



추진단 우수사례

창원단지 혁신클러스터 성공요인

2006. 12. 27

- I. 창원단지 개요
- II. 사업비전 및 성공요인
- III. 사업추진 성과 및 사례
- IV. 창원단지의 변화

대기업 중심의 국내 최대 기계산업 집적지

- 면 적 : 25km²
- 입주기업 : 1,690개사 (기계업종 1,235개사 73%, 대기업 46개사)
- 규 모 : 생산 29조원, 수출 115억불, 고용 7만3천명 (2005년)



한국 기계산업 생산의
20%

● 업종별 분포도



● 주요기업

 도산중공업	해수 담수화 설비 세계 1위
 삼성전기	디지털카메라 생산 세계 5위
 도산중공업	세계 5대 공작기계 생산 기업
 LG전자	세계 3대 디지털 가전 기업

첨단기계산업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한 역량을 보유



도시 인프라

- 경남 산업·문화·교육의 중심지
- 전국 최고의 도시 경쟁력:
1~2위 수준

혁신지원기관

- 국책연구소 : KIMM, KERI
- 대학 : 창원대학교 등 5개
- 혁신지원 기관 : 흥기청 등 19개

기업체

- 일류상품 보유 : 10개사 20품목
- 두산중공업 해수 탈수화 설비 외
- 기업 연구소 (165개)
- 박사급 110명 외 4,760명

실리콘밸리, 시스타 등 외국의 선진 클러스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 첨단기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집적된 기존 산업단지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산학연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혁신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



창원기계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5개 미니클러스터 운영

● 구성



● 운영



< 현재 >

< 향후 >

- 회원확보 598명 → 700명
- 교류활동 200회/년 → 250회/년

기업의 수요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운영



● 기술개발 : 공동·이전기술 개발(57건), 애로기술지도(27건)

● 과제발굴 : 공동·이전기술 개발(57건), 애로기술지도(27건)

● 마케팅

● 경영일반

기술개발~시장개척까지 전주기적 지원사업의 강화



〈 현재 〉

〈 향후 〉

● R&D 사업화 성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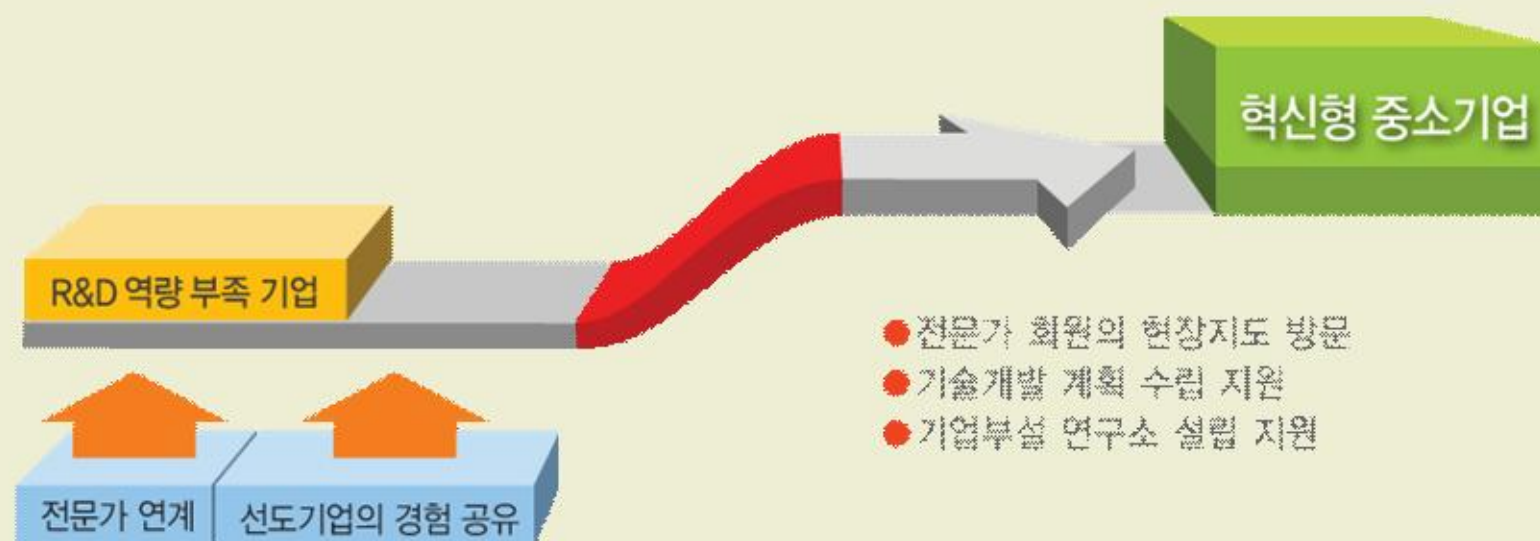
57.7%
(15/26과제, 1차년도)



70.1%
(89/127과제)

*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기술이전사업화를 대상, 상품화 후 매출 발생 기준

추진단 지원사업과 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확대



〈 현재 〉

〈 향후 〉

● 이노비즈 기업	122 개사	▶	170 개사
● 첨단 업종 기업	493 개사		800 개사

* 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벤처기업), 첨단업종기업 (지식기반 제조업 분류, 산업연구원)

창원의 글로벌 네트워크 촉진 및 국제 브랜드 강화

해외학회 · 저널

- ◆ ASPA NEWSLETTER (2006년)
- ◆ ASPA 국제컨퍼런스 (이란 2006년)
- ◆ 해외 JOURNAL (2007년 예정)
~ 창원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성공사례



클러스터 기관 교류

- ◆ 오토타구 기계산업 진흥회 (일본 2006년)
- ◆ 노르망디 모터벨리 (프랑스 2006년)
- ◆ ZEMI 클러스터 (독일 2006년)



회원사 해외 교류

- ◆ 해외시장 개척단
~ 인도네시아 3개국 (30개사)
- ◆ 해외전시회 참가 : 4회 (15개사)



- 회원사 해외마케팅(전시회) : 상담 (58건, 1,400만불), 계약 (7건, 190만불)
- 창원 클러스터 해외 소개 : 2회 (ASPA)
- 해외 클러스터 기관 교류 : 3회

* ASPA : Asian Science Park Association

창원클러스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성원의 혁신과 변화를 유도

지역혁신 분위기 확산

- 언론홍보 : 200회
- 간담회 : 50회
- 홍보매체 : 3종



기업가 정신 고취

- CEO혁신 아카데미 : 2회
- 혁신리더 특강 : 15회
- 직무 혁신 교육 : 250명



산학연 혁신기반 조성

- 혁신 워크숍 : 5회
- 선진시스템 연수 : 5회
-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 1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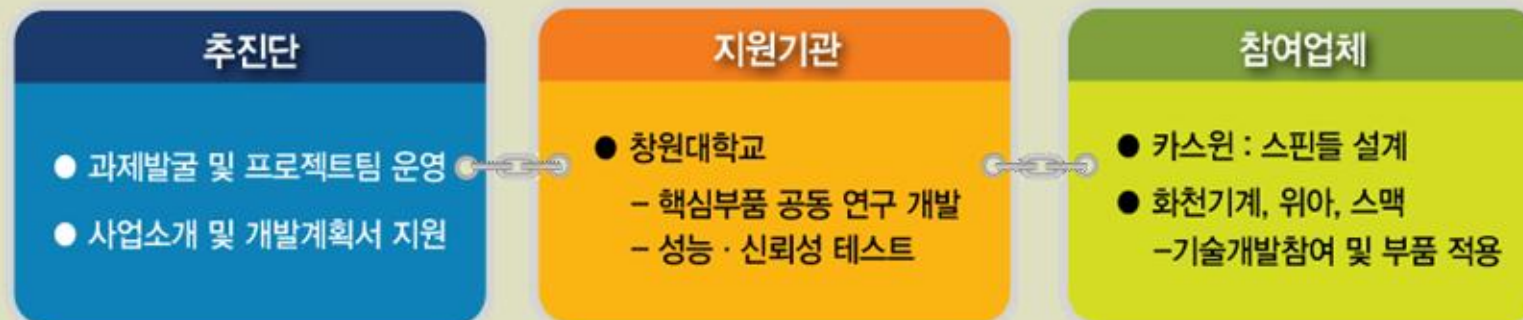


- 사진 1 - 클러스터 기획기사 : 10회 연속 연재 "창원을 세계로... 클러스터가 살길이다." (2006. 1, 경남신문)
- 사진 2 - CEO 혁신 아카데미 : 미래형 기계기술 강좌 (2006. 3 ~ 6, 서울공대)
- 사진 3 - 토요다 혁신시스템 연수 (2006. 11, 회원기업 14명)

미니클러스터 프로젝트팀을 통한 대·중소기업 R&D 협력개발(2005.11~2008.4)

- (주)카스윈 : 공작기계용 초고속 스피들 개발

- 지역특화기술 개발사업 용모·선정 (공작기계 미니클러스터, 6억3천만원)
- 공급자 (카스윈), 수요대기업 (화천기계, 위아, 스맥)
공동 R&D 협약 체결 (2006. 9)
- 혁신 주체별 역할



- 기대효과 (매출증가) : 40억원 (2008년), 60억원 (2009년), 100억원 (2010년)
- R&D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 대기업 (안정적 공급처 확보), 중소기업 (핵심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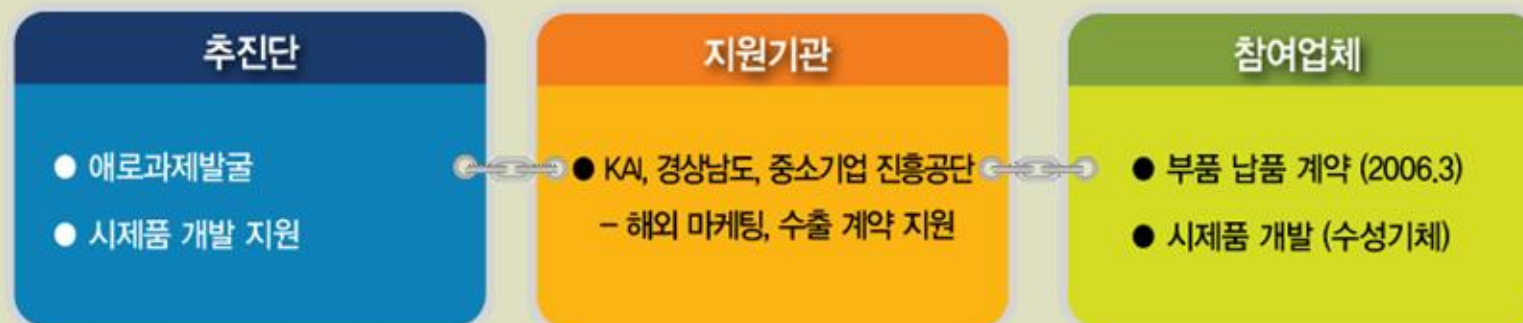
시제품 개발에서 마케팅의 전과정 지원 (2005.10~2006.3)

– 수성기체(주) : 소형항공기용 MLG(Main Landing Gear) Door Pan 개발

- 추진단 시제품 개발 사업 지원 (1천3백만원)
 - 운송장비 미니클러스터와 기업사랑방을 통한 과제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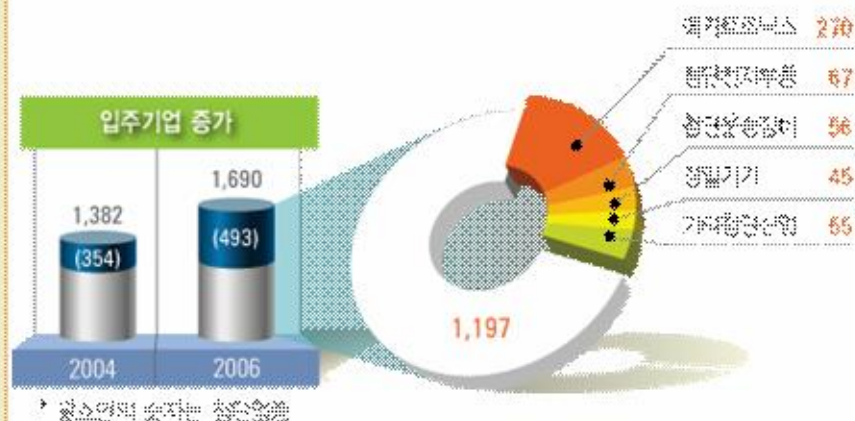


● 혁신 주체별 역할



- 기대효과 : 10년 (2006년~2015년) 총 6,000만불 납품 (일본 후지 중공업) 계약 체결
 - 해당기업 연매출의 8배

첨단기계산업으로 구조 전환



▶ 증가기업의 45%가 첨단업종

생산·수출의 증가



혁신적 미니클러스터 기업이 창원의 첨단기계산업 클러스터화를 촉진